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가복음 15:21-25

한 미국인 부부가 독일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유명한 사순절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공연 후에 그들은 예수 역을 한 배우를 만나려고 무대 뒤로 갔습니다. 그 배우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은 배우가 극중에서 지고 갔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사업가인 남편은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모습을 찍어 줘요." 그는 등을 구부리고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는 배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속이 빈 것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요?" 배우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참 힘들어 합니다. 아니 모두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지금도 지고 가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예기치 않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불의한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신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던 예수님은 힘에 지쳐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로마 군병이 다가와 사정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지만 또 쓰러집니다.

그때 로마군병은 지나가던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으로 구레네 시몬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항의 한번 못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언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큰 변화와 축복이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기치 않은 십자가, 원치 않는 십자가라도 네가 질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참고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십자가가 닥쳐오게 됩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어떤 사람들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질병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의 십자가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줄지에 경제적으로 고통을 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십자가가 올 경우에 어떻게 지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밥맛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먹으라."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게 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워주소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억지로라도 나를 써주소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 주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는 미국의 앨라배마 주입니다. 그 주의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의 재판소 앞에 비석으로 된 이상한 돌탑이 서 있습니다. 이 돌에는 "우리는 목화를 값아먹었던 벌레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습니다. 목화벌레들이여, 다시 한 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바칩니다"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이곳은 목화가 주요산업이었기에 그것을 통하여 생계를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1895년에 목화벌레 떼가 유난히 들끓기 시작하여 1/3 밖에 수확을 못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실직자가 생기고 파산자들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하고 굶고, 병들고, 일자리를 구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때 주 정부와 남은 농민들은 실망치 않고, 목화를 뽑아내고 대신 땅콩, 감자, 옥수수를 재배하였습니다. 그 후 노력의 결과로 앨라배마 주는 세계적인 땅콩산지로 변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비록 억지로 지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벌써 구레네 시몬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신앙 세계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아무리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두 어깨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 입구 벽에 시가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 못하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또한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본문 21 절을 보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A certain man from Cyrene, Simon, the father of Alexander and Rufus) 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서 16 장 13 절에는 '주께서 가려 뽑으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고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로마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바울을 잘 도와 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그 결과 그의 가정이 경건한 신앙의 가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9 장에도 있듯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르오리'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